

“유행 규모 더 커진다”...최고단계 거리두기 불가피

8월 0시 기준 1275명 '최대' 전체확진자 80% 이상 수도권서 발생 일상감염·변이 급 확산에 방역 비상등 4단계서 오후 6시 후 2명모임만 가능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를 기록하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행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으로 규정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오는 14일까지 추가 유예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75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최대 규모다.

4차 대유행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규모 면에서는 앞선 세 차례 유행을 넘어섰다. 이번 4차 유행은 지난 4월 초순부터 시작돼 300~700명대의 저강도 확산세를 유지해 오다 최근 1000명대로 폭증하면서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직장, 학교, 학원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델타 변이까지 급 확산하면서 유행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지난 4월 처음 확인된 뒤 최근(6.27~7.3)에는 검출률이 9.9%까지 높아졌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12.7%에 달한다. 당장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정부는 1일부터 방역 수위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도입했다. 다만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서는 새 거리두기 시행을 유보한 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이 유지된다. 정부는 그러나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 전체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임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척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1주간(7.2~8)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692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미 3단계(500명 이상) 범위를 넘어섰다. 지역별 일평균 수치를 보면 서울은 약 387명으로 아직 3단계에 해당하지만 4단계 기준(389명 이상)에 근접해 있다. 9일 0시 기준으로 서울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348명 이상 나오면 4단계 기준에 진입하는 첫날이 된다. 4단계 범위의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지속되면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길게 이어진 코로나19 검사 대기줄 8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희기자

경실련 “지방자치단체장 절반 이상 농지 소유”

지자체장 238명·지방의원 818명 조사 송철호 울산시장 최고가액 소유 최철원 전북도의원 면적서 최대

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결지 금지나 농지 소유 제한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전환경농업협회는 8일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농지를 소유한 자치단체장 238명, 지방의회 의원 818명으로 총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지자체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농지 면적은 52만㎡, 가액으로는 199억여 원이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면적 0.14ha(416평), 가액 2억7200만원의 농지를 가져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했다. 기초단체장 11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로 영평에 3.3ha(9851평) 면적에 가액은 2억6300만원이다.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는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치면 면적 199.4ha·가액 92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최철원 전북도위원으로 본인 명의로 전북 부안에 면적 21ha·가액 52억4900만원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인당 평균 0.4ha를 이 중 광역단체장은 평균 0.5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

었다. 특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1ha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49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을 비취했을 때 농업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농지 구매 여부와 농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jeonmae 인사이트

- ▶ 양천구, 전국 최초 공원 에너지자립률 100% 도전... '2050 탄소 중립' 일환 추진
- ▶ 보령시, 탄소 중립 실현 '가속패달'...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선정 국비 220억 확보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교육당국 10전 전패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서 학교 승소 부산·서울 8개 자사고 소송 모두 이겨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승수 부장판사)는 8일 학교 교원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며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임의 취지에 반하고, 객관성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평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 경희·배재·세화·송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도 자사고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이에 대해 안산 동산고를 비롯한 10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 자료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고, 이날 안산 동산고도 승소 판결을 받아 앞으로는 각 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자사고가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결과를 경계하며 받아들이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힐 예정이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강원도 고성군
GANGWONDO GOSONG-GUN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 ▶ **접수기한** : 2021. 7. 31.까지 / 이후 접수분은 다음해 심의
- ▶ **참여대상** : 고성군민
- ▶ **참여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및 우편 / 방문 접수
 - 고성군 홈페이지 : www.gwgs.go.kr
 -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및 읍·면 행정민원팀
- ▶ **적합사업**
 - 주민생활 현안(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
 -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 ▶ **추진일정**
- 제안사업 접수
온/오프라인
7월 31일까지
- 타당성 검토
소관부서
8월 중
- 위원회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월 중
- 군 의회 심의
고성군의회
12월 말

단신브리핑

시민주권·주민자치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세종시는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주권 및 주민자치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완료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기 인격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민주권회의 김선봉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대전세종연구원 김홍주 연구위원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에는 주민자치연합회 안정숙 회장,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오병철 회장, 행안부 하경환 주민자치지원과장, 시민주권회의 건설교통분과 김강산 위원,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과영길 교수가 참여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세종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민참여 제도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종형 시민참여 제도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양준기자 yjyu@jeonmae.co.kr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절차 간소화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감면절차를 대폭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사정신청서류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임대인에게 주민 이력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 사안에 감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시·군이 직접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사업자의 주업종과 연 매출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근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지표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소상공인사정신청공단지에서 종합소득세 등 국제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사정신청공단지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사후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검토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피서철 해수욕장 방역대책 현장점검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해수욕장·유원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해수욕장 방역대책 현장점검 위해 김성호 행정부시사가 직접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김 부시사는 낙산·경포대·망성해수욕장 및 삼척 솔비치 오션플레이 현장을 직접 찾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의 201년 여름철 특별방역대책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방역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한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주문했다.

도는 올해 여름철 특별방역 대책으로 해수욕장 방문이력 관리시스템 '인삼플', 혼잡도신호등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대형 해수욕장은 19시~21시(8시까지) 공유수변내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물놀이 유원시설과 수영장은 위생기준 준수, 인명성 검사, 안전관리자 배치 및 매일 2회 이상 소독·환기를 점검한다.

김 부시사는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은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진/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경북도·포항시·포스코케미칼, 투자협약 체결...6천억원 투자 2025년 국내 16만㎡·해외 11만㎡ 글로벌 27만㎡ 체제 구축

포스코케미칼이 2024년까지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 122,100㎡(37,000평) 부지에 6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8일 포스코케미칼과 포항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시장,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포항공장 유치와

함께 전구체, 리사이클링, 리튬 등 이차전지분야 대규모 후속투자 또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간 4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이 관광공장 라인증설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0만 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포항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2025년까지 국내에서만 16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케미칼에서 만드는 NCMA(나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는 한번 충전했을 때 500km 이상 주행

이 가능하다. 포스코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연수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2년 이상 데모플랜트를 운영한 끝에 지난달 28일 광양에 연산 4만 3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을 착공했다.

현재 포스코케미칼은 블루밸리 국가산업에도 2500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연산 16,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2월 연산 8000톤 규모의 1단계 공장이 준공된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됨으로써 K-배터리 선도시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는 "포스코케미칼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

는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능력을 크게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Post-철강을 대비해 이차전지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다가오는 뉴룩망 시대에 대응해 영일만항을 환동해 해상 물류비즈니스거점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포항을 이차전지 기술개발 및 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가 없는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dy@jeonmae.co.kr



장대 산단 첨단센서 밸리 조성 업무협약. 대전시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첨단센서산업 육성을 위한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대 산단 첨단센서밸리 조성 협약식. <대전지부>

수원시,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내달까지 노상 주차장에 4기 설치...9월부터 본격 이용

경기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시는 내달 말까지 장대리공영노상주차장, 매탄4지구노상주차장에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 4기를 설치해 9월 초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에 나섰다.

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이와함께 시는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영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 km를 운행하면 등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 기후대과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친환경 자동차를 지속해서 보급해 '저탄소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신식기자 spark@jeonmae.co.kr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방위대책 푼다

경남 창원시가 청년세대를 위한 전방위적 하반기 일자리대책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좁아진 청년취업 관문을 넓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며 4차산업혁명 등 변화한 산업구조에 활약 가능하도록 돕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책으로 청년채용장려금 지원, 청년기업형 장려지원금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한다.

우선 청년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대학 및 특성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2년 이내인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근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150명이다.

청년기업형 장려지원사업은 관내 중견·중소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촉진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채용할 시 1인당 150만원의 일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만 200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4차산업혁명과 코

로나19로 변화한 산업구조에 적응하고, 지역산업 특색에 맞는 일경험과 전문적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와함께 시는 주력산업 고도화·신성장산업 진출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확정형 기업 지원사업은 기계·장비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수소산업·미래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주축으로 두 개의 단위사업 아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한 98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우선산업 고도화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미래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19개사를 대상으로 청년채용인정제 하에,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시제품 제작 및 공장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창원/김현진기자 kimhi@jeonmae.co.kr

충남도, 상반기 740건 계약심사 통해 예산 129억 절감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총 740건의 계약 전 원가 심사를 통해 상반기 예산 129억원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307건 99억원, 용역 208건 27억원, 물품 225건 3억원 등이다.

이들보다 감사위는 단속회 심사를 통해 계약한 한 것이 아니라 인원과 품질 향상과 관련된 과소 설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실제 부여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59건에 대해선 11억원을 증액하는 등 부실 용역·공사 등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또 이와 별개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토사, 보도블록, 흙관, 수목 등 건설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해 예산을 절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생태와 도시를 이어주는 곳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순천 3E프로젝트

생태
교육
경제

순천국립관리소 소장 김정오	NH농협은행 순천지부 지부장 조창현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이흥우	순천평화병원 이사장 박진실	백진산업주식회사 대표 박정숙
순천시산업진흥과 조합장 조정록	순천광양축협 조합장 이성기	순천예총 회장 홍경수	순천남일청과 대표이사 남택용	남도교통 대표 이원재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덕	순천원예농협 조합장 채규선	순천중앙병원 원장 송영웅	순천남일청과 회장 문암숙	

일일 확진자 1200명대·델타 변이 급속 확산...백신 접종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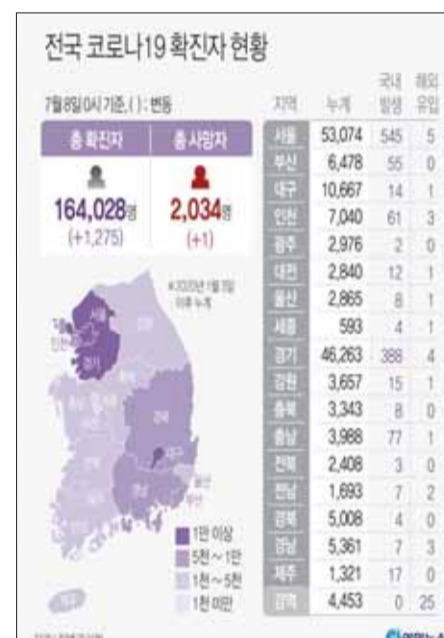
8일 오전 김포공항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이다.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한상우기

약 38만명 대상... '백신 스와프'로 확보한 화이자 13일부터 접종
서울·경기 자율접종도 13일부터...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 우선
확진자 급증한 2030 접종 확대 주장도... '전파 차단 방법 될 수 있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로 치솟으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보육 종사자, 초등학교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 인력에 대해 일정을 보류할 경우 이날 0시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보유한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에 대해 이른바 '백신 스와프'(백신 교환)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사전 예약을 하는 교육·보육 종사자 약 38만명은 오는 13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2차 접종은 3주 뒤인 8월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스라엘 제공 화이자 백신 가운데 일부는 서울,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접종에 활용된다.
13일부터는 서울 20만명, 경기 14만명 등 총 34만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접종이 이

뤄진다. 서울에서는 여러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직군인 학원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택배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한다.
경기 역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택배기사(잠배원 포함),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에 대해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접종은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48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진다.
경기에서는 약 17만여 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만약 희망자가 할당된 물량(14만명분)보다 많을 경우 이날 말 추가로 이뤄질 자율접종 때 최우선 순위에 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20~30대 젊은 층에 대한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1212명) 가운데 20대와 30대는 각각 336명, 214명으로 이를 합치면 550명(45.4%)이다. 절반 가까이가 20~30대인 만큼 이들 연령층의 접종률을 높여 감염 예방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화상으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를 갖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시장은 "4차 대응령의 골격에서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 저지를 위해 시와 자치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외출과 모임,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자치구 역할조사 인력 확충을 건의하면서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경찰 인력도 비상한 상황에서 방역과 역학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날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에는 583명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고 기록을 쓴 데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이후 감소해 올해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대체로 100명대에 머무르다 다시 늘어 지난해 29일 375명으로 치솟았다. 이후 333~346~350~289~307~320~583~550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최근 1주일간(1~7일) 서울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387.4명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밝힌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4단계) 적용 기준(서울 388명)에 육박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경기도, 신규확진 400명 육박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88%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명에 가까이 쏟아졌다.
도는 7일 하루 동안 382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 388명, 해외 유입 4명이다.
경기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집계 발표 날짜(0시 기준)로 따졌을 때 6일 229명에서 7일 387명으로 폭증하더니 8일에는 382명으로 400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300명 이상 확진자가 이를 연속 나온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하루 확진자 382명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방역 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고 "현 수준의 유행 규모가 8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안산지역 운동시설과 경기남부 일가족 및 수력발전 관련해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안산시 상록구 운동시설의 이

도내 생활치료센터(8곳)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87.7%다. 생활치료센터 병상 1700개 중 정비 중인 286개를 제외한 1414개가 즉시 입소 가능한 병상인데 이 중 1310개가 사용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당분간 방송 등 비대면 이외의 현장 경선 활동을 자제하고 경선 캠프 운영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주권자들에게서 부여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역 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코로나 대응을 병행에 집중하겠다"며 일일이 말했다.
이어 "대응 단계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검사 및 역학조사 방식 개선 등 예상치 못한 구멍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무척 엄중한 상황이지만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척돼 위중증 환자 발생은 많지 않다. 중증 환자로 전환되지 않고 경증으로 지나가도록 관리하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공원 내 야외음악 공연'을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 권고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악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운동시설·일가족 및 학원 새 집단감염
기존 감염사례 n차 전파도 지속중가
이재명 "방역활동 최우선에 집중할 때"

광주시의회
GWANGJU CITY COUNCIL

광주시의회 33년, 제8대 개원 3주년
ANNIVERSARY

**시민의 뜻대로 변화를
시민의 참여로 혁신을**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총회 열어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0일 구청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총회'에서는 발대식과 함께 '금천청소년네트워크 활동 사례 소개', '전체위원회 대면식', '청소년 정책담당 구성 및 활동주제 논의' 등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 5월 만13~18세 청소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37명의 청소년참여위원을 선발했다. 청소년참여위원들은 온라인 기본교육을 통해 청소년참여활동의 기초를 다지고 총회에 참석한다.

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마치고는 청소년의회 총선거를 실시하고 각 정당별 공약사항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1월경 청소년연합추진회를 개최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로 거듭날 예정이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어린이 식재료 방사능 안전검사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어린이 급식 재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방사능 안전검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학교·유치원 공급업체, 어린이집 공동구매 계약업체, 대형 유통판매업체 등 160곳이다.

구는 이달 말부터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중점관리대상 식재료 150개 품목을 방문 수거해 방사성 세슘 134Cs, 137Cs(기준: 우유 등 유제품 50Bq/kg, 기타 식품 100Bq/kg), 방사성 요오드 131I(기준: 100Bq/kg)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검사기관이 수행하며, 검사 결과는 매 분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학교 주변 교통사고 다발지역 4곳에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은 차량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차량속도, 번호판과 함께 경고 문구를 안내판에 표출, 운전자가 과속을 인지해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다. 기존 과속경보시스템의 단순 차량속도 표시로 운전자가 과속사실 인지의 어려움을 보완한 것. 구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 2019년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을 선정, 현장실사를 거쳐 학교 주변 4곳을 대상으로 정했다.

모든 전통시장 온라인 정보기 개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역 내 모든 전통시장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마치고, 온라인 정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잠실새마을시장은 쿠팡, 네이버 정보기, 놀러와요시장 앱 ▲마천중앙시장은 쿠팡, 놀러와요시장 앱 ▲방이시장은 방이마트시장 앱 ▲석촌시장은 네이버 정보기, 놀러와요시장 앱 ▲마천시장은 네이버 정보기 ▲뚝방시장은 '위메프'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주문배송을 원하는 주민은 네이버 동네시장 정보기 검색, 쿠팡이츠(앱), 놀러와요시장(앱), 위메프(앱)에서 가까운 시장을 검색해 상품 주문이 가능하며, 각 가정에 2시간 내에 배달이 완료된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원일)가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자체 점검과 함께 영등포구(보육, 자동차안전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함께 현장 조사가 나선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로 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한 어린이집 등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과 경찰서 소관 자료를 토대로 선정했다.

찾아가는 '중구 선별검사 기동대'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30 세대가 즐겨 찾는 지역 내 7곳에 주 1회 이상 찾아가는 '중구 선별검사 기동대'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7일 0시 기준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확진자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에서 4차 유행의 중심에 선 20~30세대 선제검사 강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발맞춰 신속하게 선별검사소 운영 확대에 나섰다.

우선 '중구 선별검사 기동대'를 7일부터 수도권 특별방역 기간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검사소에 기동성을 더해 전과 취약지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방문장소는 ▲을지로 노거리 골목 ▲을지로 골뱅이 골목 ▲동대문 DDP ▲청계광장 입구, 오피스 근무자가 밀집한 ▲을지로4가역 트윈타워 앞 ▲롯데 손해보험 빌딩 앞이다.

양천구, 전국 최초 공원 에너지자립률 100% 도전

'2050 탄소 중립' 일환으로 양천구 전 공원에 에너지 자립 추진
목동 새뜰어린이공원 태양광 공원등 4분 설치...제1호 제로에너지 공원 변신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050 탄소 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공원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공원 전환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역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마을 마당 및 텃밭 등 126곳의 모든 공원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스마트 설비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IoT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태양·바람·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시공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통한 친환경 도시브랜드를 구축해 나간다.

구는 지난해 신정4동 새뜰 어린이공원에 태양광 공원등 4분을 설치해 '양천구 제1호 제로에너지 공원'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이달 신월4동 꼴벌 어린이공원에 태양광 공원등 4분, 스마트 안내판 1개, 스마트 벤치 2개 등을 설치해 제2호 제로에너지공원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 자립시행으로 두 공원은 연간 약 643kg의 CO₂발생을 절감하고, 연간 약 97주의 나무 심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주관하는 '20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대상지로 양천공원이 선정돼 9000만

원의 예산이 교부될 예정이다. 구는 통합놀이터 파고라 및 책센터 지붕에 50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공원 내 책센터와 키지트, 공원등, 실개천 등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34%의 에너지 자립, 연간 절약 전력요금 약 870만 원, 연간 CO₂절감량 약 2만 5295kg, 연간 약 3833주의 나무 심기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정3동 계남공원 야외무대 재정비 시, 건축물 상부에 20KW의 태양광 설비를 시공해 연간 절약 전력요금 약 690만원, 연간 CO₂절감량 약 9383kg, 연간 1만 4322주의 나무 심기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Zero Energy Park'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 향후 10년의 제로에너지공원 전환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방

향을 제시했다. 구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제로에너지공원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수영 구정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10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붕과 파고라에 태양광 설비 설치예정인 양천공원의 책센터. (양천구 제공)

김수영 구정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10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구정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10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종로구, 문체부 '이건희 미술관 송현동 건립' 환영

삼성이 미술관 건립 추진하던 곳...고인유지 품을 최적지
지상 '숲·공원·지하' '이건희 미술관' 짓는 방안 건의 예정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문화체육관광부의 7일 국가기증 이견회 소장품관(이하 이견회 기념관) 건립 후보지 발표에 "송현동 부지가 고인회 회장의 유지를 품을 최적지"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정부에서 송현동에 이견회 기증관을 짓는다면 적극 협력할 것임을 전하며 송현동 부지야말로 '적지'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송현동 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하는 대신 그린룸의 사유지와 교환할 계획이다.

송현동은 삼성에서 미술관을 지으려다 포기했던 장소로 고인의 유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줄기차게 주목

을 받아왔다. 경복궁과 청와대, 광화문 등을 잇는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그간 이와 어울리는 품격 있는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돼 온 곳이기도 하다.

이견회 기증관이 송현동 땅에 세워지면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을 앞둔 서울공예박물관, 삼정동, 인사동, 북촌에 밀집한 것임을 전하며 송현동 부지야말로 '적지'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송현동 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하는 대신 그린룸의 사유지와 교환할 계획이다.

김종구 국민유산문화재단 이사장,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150명이 모여 발족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준비위원회에서는 송현동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나

갈 미술관 신설을 요청하고 뜻을 함께하고 있다.

앞서 구는 2010년부터 송현동 부지에 '숲·문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송현동의 입지 특성상 공익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3월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함에 당시부터 매각계획 발표 이후까지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송현동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되찾고 낱아 심각한해지는 도시의 미세먼지에 대응할 허파 같은 공간으로,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한 나라를 상징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시켜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의도에서다. 구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후보지 발표에 발맞춰 송현동 부지 지상에 '숲·공원'을, 지하에는 '이건희 미술관'을 짓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임영찬 기자 limhc@jeonmae.co.kr

강동구, 대한민국 환경대상 '도시농업분야' 11년 연속 수상

도시농업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환경적 가치·성과 인정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상암동 중소기업DMC다위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공공부문 도시농업 분야에서 11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농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해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자 중 유일하게 11년 연속 수상자로써 도시농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친환경 가치 사업의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미래는우리손안에 '환경미디어가 최최하고 환경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환경대상은 경영, 교육, 문화, 관광, 생태복원, 재활용, 산업설비, 에너지절감, 농축산물, 서비스, 제품, 특수부품 등 각 부문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 접근으로 노력한 단체와 개인에게 상을 수여한다.

구 도시농업은 2010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도시농업을 통해 환경, 건강, 교육, 정서적 가치, 건강한 먹거리, 종자 주권의 회복 등을 추구하기 위해 ▲도시텃밭 ▲토종씨앗도서관 ▲도시양봉장 ▲도시농업

공원 ▲공공급식센터 ▲파식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장인 싱싱드림을 운영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체계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산물의 장거리 운송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강동구 도시텃밭은 2010년 226구좌로 시작해 현재 6258구좌까지 늘어났다.

올해 '공유팍'과 '원데이 체험텃밭'을 운영해 이웃과 텃밭을 공유하고 공동체문화 회복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저소득 주민에게 반려식물을 통한 원데이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복지 기능을 연계한 사회적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도봉구, 유네스코 ESD프로젝트 두번째 인증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2018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획득했다.

2021년도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된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도봉구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 사업은 2018년 최초 인증에 이어 다시 인증을 획득한 것.

이동진 구정장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이 도봉구의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이어갈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11년부터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Korean UNESCO ESD Official Project, 이하 ESD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평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문 심사평가단에 의해 거버넌스 정책 및 역량, 시설 및 운영현황, 교육과정 및 교수법, 지역사회 파트너십,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도 등 공식 기간 중 수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로 진행된다.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 사업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복지부 평가8년 연속 '우수·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단위 평가서 2014년 이후 연속 우수기관 뽑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대상 체계적 자활서비스 제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전국 237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2020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2014년 이후 8년 연속 우수기관 또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단, 자활기업 운영 지원과 취업 지원 등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최민준 센터장은 "전국 단위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센터가 은평구와의 공동 협력으로 얻게 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자활사업 활성화를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영찬 기자 limhc@jeonmae.co.kr

강서·강남·강북·노원, 12일 상품권 발행

희차별 발행액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서울 자치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모바일 지역화폐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7월 이내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표기 금액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올 하반기 총 210억 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 2차 판매를 시작한다. 이어 오는 9월에 110억 원 규모의 3차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교)도 12일 오후 2시부터 20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는 지난해 630억원, 올 초 250억 원 규모로 발행, 매회 초기 매진된 바 있다. 구는 위촉된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꾀하고자 지난 2월 말 1만7489곳이던 제로페이 가맹점을 2만1246곳으로 확대했다.

같은날 강북구(구청장 박경수)도 152억 원 규모의 강북사랑상품권을 추가 판매한다. 이번 상품권은 1차 70억, 2차 82억 규모로 분할 발행된다. 지난 2월 150억 원에 이어 올해 2번째다. 2차는 9월에 추수 명절을 맞아 선보일 예정이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110억 원 규모로 '노원사랑상품권'을 2차 발행한다. 구는 지난해 3월, 30억 규모로 발행을 시작한 노원사랑상품권은 당일 완판돼 그 뒤 3차례 걸쳐 85억 규모를 발행했다. 4차 215억 원을 발행했고 모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구매는 20개 제로페이 앱 가운데 하나를 내려 받은 뒤 결제 계좌와 연결하면 된다. 가맹점 현황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 서비스인 '지맵(Z-MAP) 어플' 또는 '제로페이 홈페이지-제로페이 소개-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유통·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박창복 기자 홍상수 기자

성북구,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지역특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할 것"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처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55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전국에서 대학교가 가장 많이 위치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서,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쳐왔다.

발범유해업소가 즐비했던 삼양로를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청년창업거리'로 육성하고자 2019년 부지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맞춤형 주거 관리서비스로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의 선도적 사례가 된 청년 취·창업 두드림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또한 스마트 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성북구 패션산업 허브 역할

을 할 패션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 생활임금 적용,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감질방지 선언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및 고용안정 유도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이번 수상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단체장의 높은 의지와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 창의적인 일자리사업 발굴, 취·창업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승로 구정장은 "구는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혁신산업 육성 지원, 지역산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 취·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역특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용산구, 베트남 퀴논시 한옥건축 건립 속도낸다

효성중공업, 전북대에 퀴논시 한옥건축 건립 위한 발전기금기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효성중공업(사장 김동우)이 용산구-퀴논시 우호교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트남 퀴논(Quy Nhon)시에 한옥 정자, 건물을 세운다.

구는 지난 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베트남 퀴논시 한옥건축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기증식을 개최했다.

효성중공업은 기증식에 앞서 전북대에 한옥건축 건립기금(전북대학교 발전기금) 2억원을 기탁했으며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날 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는 지난해 전북대에 '한옥 세계화를 위한 건축현역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은 한옥 부흥을 위한 협력, 한옥건축 및 기술력 수출, 한옥 및 목조 건축물을 소재로 한 지역 및 해외 봉사활동 협력 등을 약속했으며 2021년 말까지 구 해외자매도시인 베트남 퀴논시에 한옥건축물(정자, 한국홍보관, 한국정원)을 세우기로 했다. 부지는 퀴논시에서 마련했다. 안푸림 신도시(국제무역지구) 내 200제곱미터 규모다. 건물·정자 설계는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단장 남해경 교수)이 주관하고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서양호 중구청장 “걸어서 1000바퀴, 중구를 변화시키는 밑거름”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민선7기 중구청장 취임 전
에 지역을 100바퀴 돌고, 취임 후엔 매일 새벽 5시부터
구청까지 걸어 출근하고 있다. 걸어서 중구를 돈 것만
다 합해 1000바퀴가 될 정도다.

처음엔 구민들도 관용차 없이 혼자 걸어 출근하는 구
청장을 낯설어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 구청장이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비타민 음료 한 병을 건네기도 한
다. 서 구청장은 한 자 한 자 똑똑 눌러 쓴 주민의 편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서 구청장은 “덕분에 어느 집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
에 입학했는지, 어느 집 할아버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셨
는지 세세한 동네 사정을 꿰고 있을 정도다. 주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변화를 만들어 낸 비결이라면 바
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며 전국매일신문과의 인터뷰
에서 3년간 중구에 일어난 괄목할 만한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서 구청장은 민선 7기 초선이다. “지자체의 모든 정책
은 수요자인 구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중구민 우
선 행정을 펼쳐 온 그는, 취임 이후 주민의 필요를 더 가
까이 보고 듣겠다며 골목골목과 전통시장·다세대 주
택이 밀집해 있는 활약동으로 이사했다.

취임 후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면
운동화와 점퍼 차림으로 집을 나서 주민들과 대화하며
걸어 출근하는 ‘뚜벅이 구청장’으로 유명하다.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주민 삶의 절실한 필요가 담
겨있다. 아이 돌봄부터 골목경제·생활편의·지역문화
까지, 답답했던 주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듯 좀처럼 해
결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평을 듣는다.

● 학부모 만족도 99% 중구청 초등돌봄·영유아 100% 무상보육 전국 최초 시행

동네 주민에게서 구청장 취임 후 피부로 와닿는 가
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옆에 아홉은 ‘상업 중
심 도시’ 중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한 것을 꼽
는다.

2019년 서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도입돼, 학부모 만족
도 99%의 성과를 이룬 ‘중구청 초등돌봄’은 정부
에서 모델로 삼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킬 만큼 온종일
돌봄의 전국 표준모델이 됐다.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을
0(제로)로 만든 ‘영유아 100% 무상보육’ 또한 전국 최초
시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 구청장은 “이전 학교 돌봄은 4-5시면 끝났기 때문
에, 퇴근해 집에오면 저녁 7-8시가 되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 맞지 않는 반쪽짜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학교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은 아침 7시 30
분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직접 운영하는 ‘구
청-학교 협력 돌봄’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에 관해선 “국공립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
라고 하지만, 한 아이 당 많게는 1년에 200만원까지 추
가비용이 발생했다. 중구는 현장학습비부터 특별활동
비, 차량운행비 등을 전액 구청에서 지원해 진정한 무상
보육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제1호 중구청 돌봄교실이 설치된 흥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신입생만 20여명이 늘어 나는 고무
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보육·교육 정책이 수십년간 풀
지 못하던 중구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주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서울시 최다 40개 전통시장은 특성화 전략으로 살 길 모색

전통시장에는 이미 변화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40곳의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많기
로는 서울 자치구 중 단연 1위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중
구 지역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자 역대 구청의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전통시장 활성
화에 수백억 원이 들어갔음에도 사실상 피부로 체감되
는 변화는 없었다. 서 구청장은 그 이유를 ‘시장 특성을
무시한 시설 위주의 전방위적 사업’에서 찾았다.

서 구청장은 출발선부터 달리했다. 상권별로 수습차
레 간담회를 열어 상인·전문가와 머리를 맞댔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짰다. 지금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곳은 활약동 중앙시장이다. 한 때 서울의
3대 시장으로 불릴 만큼 번성했지만, 90년대 이후 닭·
돼지 부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기름때, 시장 노
후화 등으로 활기를 잃은 대표 시장이기도 하다. 서 구

비스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이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동네 공원관리처럼
구청보다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할 때 주민의 요구를 더
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것
이었다. 77개 사무와 예산을 동으로 이관했고, 해당 사
무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을 동별로 2-3명씩
보충했다.

여기에 3년간 177억원을 ‘내가 낸 세금 쓰일 곳도 내
가 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 다른 자
치구에 비하면 4배 이상 큰 규모다. 2019년에 높은 참여
율과 규모를 인정받아, ‘주민참여예산 운용 최우수 자치
구’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
이 힘겨게 오르내려야만 했던 경사로에는 엘리베이터
가 생기고, 쪽방촌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이발서비스
가 생기는 등 구석구석 주민의 갈증이 해소되고 있다”
고 말했다.

● 매일 새벽 주민들과 대화하며 출근하는 ‘뚜벅이 구청장’ 상업 중심도시 ‘중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화

청장은 “활약동 중앙시장은 코로나 시기에도 점포 수가
늘어난 특별한 시장”이라며 “그 배경엔 핏빛과 기름때
누출을 방지하는 특수 핸드키를 구청에서 제작해 지급
하고 주 2회 꾸준히 물청소를 실시해 악취를 제거한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층을 타겟으로 북유럽 감성
의 차광막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경리단길의 유명세프
가 시장 내에 점포를 치리는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
운 ‘핫플레이스’로 등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삼은 동대문과 코로나로 인근
직장인의 발길이 끊겨버린 남대문 먹자골목을 위해선
비대면 판로를 열었다. 동대문의 점포 35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어 창업을 지원하고, 운영 방송인을 조대해
200개 점포에 온라인 판매 촉진활동을 지원했다. 남대
문 시장의 맛집은 배달서비스를 연계해 초기 비용을 지
원했는데, 이렇게해서 지난해 하반기에만 도합 1억여
원의 부가수익이 창출됐다.

지난해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5년만에 처
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 주민 권한은 더욱 크게, 생활 서비스는 더욱 가깝 게…동(洞)정부

서 구청장은 담대한 실험도 시작했다. 구청의 권한은
줄이고, 주민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동의 권한은 더욱 키
우는 ‘동(洞)정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 서 구청장
은 동정부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주
민은 단순한 ‘참여’에 머물지 않고 ‘권한’의 주체가 된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동의 권한은 더욱 크게 구청의 권한
은 점점 작게 한다. 주민의 의사 결정이 곧 동 행정의 중
심이 된다. 이 세가지 원칙에 의해 구청과 동의 행정서

●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로 주택가도 아파트처럼 살들 하게 돌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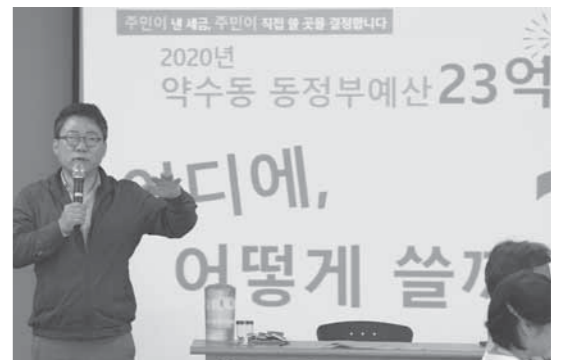
올해 중구에 새로 생긴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또한
동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주
택가를 아파트단지처럼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구다. 올
해 2월 상업인구 비율이 높은 소곡, 을지로 명동을 제외
한 12개 동에 1개씩 설치됐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
정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거주민들을 위해 서 구청장이 아이디어를 낸 건.

관리사무소에는 각각 15명 안팎의 인원이 함께 일한
다. 쓰레기 배출부터 등하굣길 안전 관리, 택배 보관, 간
단한 집수리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의 특별한 점은 안팎의 주민 일
자리를 창출했다는 데 있다. 보통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실업대책으로 다뤄져 왔다. 짧은
시간 단순한 업무를 소화하면 소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복지적 측면이 강조됐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동네 관리
사무소는 다르다. 인력 전원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고,
8시간 전일제 근무와 4시간 파트타임제도 나눈다. 이들
모두에겐 시급 1만원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이 지급된
다. 근무자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서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아말로 아이들 통학로에 어
느 골목이 가장 위험한지, 어느 지역에 상업적으로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지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의 전문가”라
며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도입한지 3달여가 지났
는데, 벌써 초등학교 통학길에 상습 무단정차 문제를 해
소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동네 더러운길 퀴스트
15곳’을 뽑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생활안전과 청소
환경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양의 기자 seo@jeonmae.co.kr



위로부터 집무실에서 전국매일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는 서양호 중구청장. 출근길에 만난 공무원과의 대화, 흥인초 돌봄교실 프로
그램 참여, 인헌시장 입간판 개선 후 상인들과 점거,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화현동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물품대여함 점
검, 신당누리센터전경. (중구 제공)

중랑구 행복한 미래 세대를 주라

꿈과 희망을 키우는 중랑 교육의 요람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개관!

중랑구민의 오랜 열망인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학교, 가정, 마을을 연결하여 한층 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쾌적한 학습체형 공간을 지원합니다.

“희망과 내일을 위해
다 같이 아이를 잘 키우자”

소파 방정환 1899. ~ 1931.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아동복지 ‘어린이, 통 창간한 아동문화운동가, 독립운동가
33세에 요절하시어 영우리공원에 잠들어 계신다

7F 명사특강 등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강의실

6F 눈과 마음의 향연을 위한 힐링공간
요양실, 평생학습관 사무실

5F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공간
프로그램실(37)

4F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
자기주도학습실, 전문직업체험가이드센터
사무실

3F 교육지원센터, 중랑교육복지센터
상담실

2F 도서, 서점 등을 관람이 즐기는 휴식공간
북카페, 휴게공간, 방정환 Hall

1F 출판구 주차장

B1F 청소년을 위한 사색산업 체험 활동공간
로봇교육장, 코딩, 메이커스페이스, 방송실 등

이름안내
위 치 중랑구 명우로 325
이용대상 청소년 누구나, 청소년의 삶에 동행하는 중랑구민 누구나
운영시간 (평일) 09:00~22:00 / (토·일) 10:00~18:00
문의 ☎ 02-2094-0091 ~ 4, 1992 ~ 7
홈페이지 educenter.jungnang.go.kr

용산구의회 개원 30주년

힘 있게 만드는 행복한 변화.
용산구의회가 시작합니다.

김금선
용산구의회는 국민의 행복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대한민국환경대상 환경행정 부문 본상

인천 서구는 최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된 '제16회 2021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행정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단속과 사후대처 등 기존의 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가운데 예방적 환경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감량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선도시 구축, 서로이음길 11코스 조성 및 녹지충량제 확대, 데마가 있는 4대 명품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통해 '환경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환경행정 부문 공모에서 본상을 받게 됐다.

한편 구는 환경대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롯데칠성음료(주),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의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보전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순환사회 진입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재개...30여종 검사 구성

인천 용진군은 최근 자월면을 시작으로 도서주민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을 재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동진군 주민이면 가능하고, 검사항목은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 검사(안저안압 검사)를 비롯해 혈액 및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방사선검사 등 30여 종으로 구성돼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각 면에서 진행되는 주민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제 진행

인천 남동구는 최근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동행하는 공영장제를 치렀다.

8일 구에 따르면 첫 공영장제 대상자는 50대 남성으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다 지난날 초 탁에서 사망, 경장을 통해 발견됐다.

이후 구는 지난 6일 인천가족공영 공영장제 제례실에서 장례예식을 진행하고 화장 후 금야중에 봉안했다.

장례예식에 참여한 진척 김 모씨는 "최근 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돼 황망하지만 구청의 도움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최근 가족 해체 및 빈곤 문제로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영 장제지원으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15개동 57개 구역 나눠 '마을환경관리인' 배치

인천 연수구는 관내 15개 행정동을 57개 구역으로 나눠 '마을환경관리인'을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마을환경관리인으로 위촉된 57명은 각 구역에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을환경관리인은 실제 청소 요원은 아니지만 지역 순찰을 하며 쓰레기 수거업체나 환경미화원과 협력해 동네 청결 상태를 감시하게 된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 주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매달 44만 7000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구는 마을환경관리인 사업 시행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는 감소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교육시설 안전관리 특별점검

인천교육청은 학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근절하고, 확대박이나 절단 팜 등 붕괴 위험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날 16일부터 이날 7일까지 3주 동안 교육시설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학교 신·증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가칭)해양중학교와 송도6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시설의 품질 확보와 건설현장 시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현장 관제자를 격려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도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송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시 입주 추천의향 있다”

바이오 창업기업 송도국제도시 주시 <Ⅱ>

바이오 관련 326개 기관에 설문조사...97%가 긍정적 3.4%만 “없다”

실제로 바이오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천시가 지난 3월중 2주 동안 'K-바이오 랩허브'의 실수요자인 바이오 관련 기업의 정확한 수요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 326개 기관에 이메일 발송을 통해 진행한 가운데, 'K-바이오 랩허브' 입지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 대학과 교육기관 등 인력확보 용이성, 금융·실용인프라·상용화 지원 등 기업 지원환경, 세계 등 지자체 혜택, 대기업 등 시장확보 여건, 공항·항만·도로·철도 등 물류 편의성과 생활 및 정주여건,

향후 확장 용이성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인력확보 용이성은 54.6%를 차지, 입주요건 중 전문 인력의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스타트업 창업 시 송도국제도시 'K-바이오 랩허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천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84개사로 56.4%를 차지했다.

이와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이 131개사로 40.2%, 없다는 답변이 11개사로 3.4%를 차지, 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의 구축은 전국적인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그동안 업계에서 호소해 오던 전문인력 문제를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센터' 유치로 매년 200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통해 해결했다.

또 수많은 벤처캐피탈의 집적지인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투자 입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의무기업 투자에 따른 혜택, 바이오 엔지니어링과의 연계,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항과 항만 위치로 글로벌 시장진출 용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200만㎡ 조성으로 확장 가능성 등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업의 니즈에 필요한 요건이 맞춤형처럼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K-바이오 랩허브의 구

축도메인 보스턴 랩센터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주도로써 자생적으로 성장한 도시"라며 "인천시 또한 시가 마련한 토대 아래 민간주도로 바이오산업이 성장해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표적인 기업이 셀트리온으로 인천이 깃발을 육지로 바꾸어 조성한 토지 아래 기반을 깔고 이제는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간기업이 됐듯이 인천은 제2 제3의 셀트리온으로 재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를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는 8일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개소

인천시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고 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박남춘 시장, 신은호 시의회 의장, 유동준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 조현석 인천소상공인협회 이사장, 오승섭 (사)인천소공인협회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제로 동구 송현·송림동 일대 소공인 집적지구는 평균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술 장인이 많고 기계장비 소공인이 밀집된 지역이다.

또 동구지역은 전체면적의 52% 이상이 공업지역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제작에서부터 판매·유통까지 전 과정을 집

중·송림동 일대 기계장비 소공인 밀집 판매·유통까지 전 과정 진행 여건 갖춰 시, 소공인 경쟁력 향상 체계적 지원 주력

특히 공동기반시설 구축으로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소공인 경영대학 운영, 생산·품질관리 개선사업, 제품 관리계획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 소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식재산 관련 인증 지원과 다양한 측정 장비 활용이 가능한 공동기반시설로 소공인들의 영세성과 고통화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문을 여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 공·국·사별 각각 15억 원을 지원받아 모두 30억 원의 사업비로 이번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꿈드림 장학회” 선별적 장학제로 인천 교육중심 1번지 영예 회복 최선”

허인환 동구청장 '3년 성과' <Ⅳ>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조성·구 직영 진로체험지원센터 통해 진로교육 추진 전국 최초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동구시량상품권 발행 3개월만에 완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분야에 집중투자 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 인천 동구는 2019년 출범시킨 구 직영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기관 진로체험, 희망 진로체험교실, 주니어 드라미빙 스쿨, 꿈을 향해 달리는 진로버스, 학교 연계 진로스쿨, 재능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의 날 등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 속에 아동 및 청소년의 수준별 진로교육을 추진해 왔다.

또 영재교실 및 은과인 영어교실 등 인재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동구 마중학교를 운영해 마을 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허인환(사진) 구청장은 "특히 '꿈드림 장학회'의 장학 사업을 선별적 장학제도로 개선,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꼭 필요한 지역 내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 양성, 동구가 명실상부한 '인천 교육중심 1번지'라는 영예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린이·청년·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맞춤형 복지

2019년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접종률 95%를 기록할 만큼 구민이 만족하는 동구의 성공

● 동구문화체육센터

그동안 문화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 온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동구문화체육센터'가 지난 1월 동구 최대 규모의 공공시설로 준공돼 7월 1일 개관식을 마쳤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체육시설로는 수영장 6대인과 유아수영장, 헬스장이 구축된 가운데 문화시설로는 공연장 45석과 전시장 등으로 마련됐다.

동구문화센터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도입, 개선사항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운영할 예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구시량상품권

지난 2019년 10억 원을 발행한 동구시량상품권은 발행 3개월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추가 발행한 5억 원까지 완판되는 대성과를 기록했다. 지역경제와 품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동구시량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식당, 학원 등 1500여개의 가맹점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허 구청장은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동구시량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수당도 일부 동구시량상품권으로 지급, 동구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사회문제 공유경제로 풀 수 있어...주차난 해결 총력”

민선7기 취임 3주년 인터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II>

김정식(사진) 미추홀구청장은 “구정 철학 핵심 키워드는 ‘공유’”이라며 “이 공유와 이어지면서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공유’”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유경제 개념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나서고 있다. 제운사거리 주변 기존 유휴공간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현재 10개의 점포에서 청년들이 창업했다.

올해는 창업점 4개소를 추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방과 구민들을 먼저 취임시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실제 35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취업에 성공했다.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정비한 것과 지난 5월 완공된 어린이교통교육관은 단순

학교 공간 개방 동네 주차장 역할 7680개 노인일자리 창출 적극 나서

교육공간이 아닌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역시, '수인선 바람길 숲' 이름으로 역사·문화·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도심 한가운데 주민참여형 녹색복지 공간을 조성이라는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다.

김 구청장은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금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위시해 지난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최우수상, 인천시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의회 김성수(왼쪽) 의원이 중구 영종 앞바다에서 열린 주꾸미 수산 종자 15만 마리 방류 현장을 방문했다.

인천시의회 “우수종자 방류로 인천바다 풍요롭게”

김성수 시의원, 주꾸미 수산 종자 15만 마리 방류 참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주꾸미 수산 종자 방류에 참여,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8일 견교위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남동)은 최근 중구 영종 앞바다에서 주꾸미 수산 종자 15만 마리 방류 현장을 방문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꾸미 수산 종자의 자체 생산 및 방류를 통해 자원 회복에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주꾸미 생산량이 전국 1위에 빛나는 결과를 달성하면서 어업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사전컨설팅감사 호응

충북도가 중점 추진하는 사전컨설팅감사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책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도가 직·간접 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제정해 도민과 공무원의 제도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특히 기업·소상공인 관련 집중추진 기간 동안 직접 기업간담회에 참석하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상담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전 컨설팅감사에 초석을 놓았다.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를 보면 전문체육 전임 지도자 채용과 관련, 코로나 19로 인한 연수과정 미시행으로 전임지도자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평가와 실기 합격자에 한해 추후 실시될 연수과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응시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채용지도자를 뽑우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청주/양철기기자 kyang6@jeonmae.co.kr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경기 용인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의 고혈압·당뇨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로, 관내 3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256곳의 협약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별일수에 따라 30일 7천 원, 60일 1만2천 원, 90일 1만7천 원을 지원하며 약 조제 시 약국에서 자동 차감해 지원금을 제외하고 약값을 내면 된다.

올해는 지난달 30일까지 2만7282건 총 3억7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남아있는 예산 3억8000만 원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내년 신설 집현초·중 교명 공모

세종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정 집현유, 집현초, 집현중 3개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신청은 교육가족, 지역주민, 입주예정자, 이전기관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응모방법은 시교육청 누리집에 첨부된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이메일(zeep00@korea.kr)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교명은 부르기 쉬운 순우리말,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교명, 세종시의 발전 동향을 반영하는 교명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세종/유원수기자 yjyou@jeonmae.co.kr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강원 정선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이달말까지 진행 일정으로 하절기 풍수해 및 화재 등 특이사항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급식위생 상태,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설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190여개소로 노인여가복지시설(관내 경로당) 171개소, 노인요양복지시설(정선군노인요양원 등) 8개소, 장애인복지시설(정선프란치스코의 집 등) 5개소 외에도 노인일자리기관(정선시니어클럽 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여가복지시설(관내 경로당) 171개소, 노인요양복지시설(정선군노인요양원 등) 8개소, 장애인복지시설(정선프란치스코의 집 등) 5개소 외에도 노인일자리기관(정선시니어클럽 위) 등이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군관리 공유정원 조성 기념식

강원 철원군은 전날 군관리 마을회 주최로 버드나무 공원에서 갈밭읍의 자치역량강화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공유정원 조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무심했던 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시행된 군관리 공유정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손수 꽃을 심고 환경을 정화해 만든 주민참여형 정원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으며 농촌마을과 어울리는 아늑한 정원을 조성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중 군수는 “군관리를 상징하는 버드나무가 아름다운 마을의 공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녹이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지명복기자 jimb123@jeonmae.co.kr

우체국 철원사랑 카드 출시

강원지방우정청은 코로나19로 지친 골목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일 철원군 체크카드형 지역화폐인 ‘우체국 철원사랑 카드’를 철원우체국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강원도 내 우체국에서는 정선우체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 되는 우체국 지역화폐카드다.

우체국 지역화폐카드는 충전금액만큼 지자체 내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금액이 소진되면 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거래를 꺼리는 고령도 스마트폰 앱(cha)을 통해 카드발급에서부터 충전, 사용내역,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원주/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선정...국비 220억 확보 관산지구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충남 보령시가 최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으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탄소 중립 실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해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통해 전국 79개 시군구에서 116건의 사업을 신청받아 부



정선군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7일 '비상대책본부 11차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도의회 제공>

장현국 의장 “느슨해진 방역 고삐 다시 조일때”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대면 11차 전체회의...신규 확진자 급증 대책 마련 촉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은 전날 ‘비상대책본부 11차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인 장 의장은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으로 국내 환자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방역 대응 책임감을 다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남양주2)과 박근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비상대책본부 위원 및 도청과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와 교육

민의 신뢰를 쌓아온 도가 최근 ‘경기도지사 공판정치료’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로 믿음을 잃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만전을 얻 뒤 직원이 확진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출 요구 자료는 ‘경기도 공직자 코로나19 확진 현황 및 감염경로’, ‘언론보도 관련 공판 민간 내역’, ‘공판 출입자 확인용 CCTV 기록’ 등이다.

장 의장은 “도 소속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권력을 타워에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회와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파주시, 내년 특수상황지역 국비 146억 확보

경기 파주시가 ‘특수상황지역 공모 신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6억원을 확보, 내년 정부예산안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점적지역으로 시 전체가 특수상황 지역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일반 국비가 아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현재 추진 중인 특수상황지역 지원 계속

사업은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응주골 정조문화벨리 프로젝트, 파주 둘다리 문화마을, 파주 리비코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 사업, 지표수 보강개발(별관·탄현지구),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파주 받고시 평화생태마을, 금촌 민·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파주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파주/임철원기자 imci@jeonmae.co.kr

민의 신뢰를 쌓아온 도가 최근 ‘경기도지사 공판정치료’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로 믿음을 잃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만전을 얻 뒤 직원이 확진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출 요구 자료는 ‘경기도 공직자 코로나19 확진 현황 및 감염경로’, ‘언론보도 관련 공판 민간 내역’, ‘공판 출입자 확인용 CCTV 기록’ 등이다.

장 의장은 “도 소속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권력을 타워에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회와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이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조성 등 주민복지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가 내년 특수상황지역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사업과 예산은 이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80억원), 캠프하우스 야구전용구장 건립(24억원), 별관 초리골 도로확포장(58억원), 마을에서 놀자, 파주5리 행복마을조성(4억원) 사업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가 시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임철원기자 imci@jeonmae.co.kr

서천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2년 연속 ‘최우수’

충남 서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올 상반기 2127억원을 집행해 역대 최고 집행률 132.28%로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집행했으며 소비·투자 부분 예산을 중점 집행해 모든 분야에서 충남 군부 1위를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연초부터 이교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행안부 상반기 집행기준인 55.1% 보다 높은70%를 자체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했으며 부시장 직무 평가와 연계해 팀장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 집행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조기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등 투자부문 예산을 당초

목표액 대비 154.58% 집행했으며 사업별 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현안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

노보래 군수는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아산폴리텍대학 2년제 학위과정 7개 학과 입시설명회...내일부터 접수

2022학년도 아산폴리텍대학 입시설명회가 8일 혁신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아산·천안·예산 소재 고교의 3학년 부장교사들 대상으로 전년도 입시설명회 분석 발표와 함께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력을 소개했다.

아산폴리텍 2년제 학위과정에는 4차산업 시인재 인력양성을 위한 7개학과인 정보통신시스템과, 시각디자인과, 방송미디어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산업설비자동화과, 자동차융합기계과, 메카트로닉스와 등 설명회를 통해 고3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과별 상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캠퍼스 투어로 진행했다.

천안 소재 한 고교 3학년 부장은 “우리 학생이 아산폴리텍에 진학해서 접할 교육환경과 훌륭한 실습장비들을 면밀하게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며 설명회에 참석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는 2022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2022학년도 아산폴리텍대학 입시설명회가 8일 혁신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아산폴리텍대학 제공>

입학을 희망할 경우 10일부터 진학사 원서접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아산/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남지원센터 구축’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후처리 시스템 평가 장비 구축 및 평가 기술 고도화, 시험센터 및 통합 테스트 구축, 선박 엔진용 후처리 시스템 상용시험 인증방안 마련 및 표준화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탄소 ZERO 화 및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선박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가시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인프라 집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기업을 유체해 연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사업과 연계한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잠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정선군, 라이브커머스 활용 농특산물 비대면 마케팅 추진

최대 15% 할인 시용품 등 증정

강원 정선군이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스마트기기와 방송장비를 통해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가 감소함에 따라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방송에는 정선군도래 명품과에서 정선수리취떡영농법인, 정선나물연구소, 정선농협 순으로 수리취떡, 방동군도래, 간터덕 간편식 등을 최대 15% 할인 판매를 하고, 판매촉진을 위해 추가 할인권과 시용품을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최승준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농업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를 비롯한 스마트 스토어 입점, 주력 농특산물에 대한 매체광고와 SNS 마케팅을 강화해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라이브 커머스에서 각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맞는 스토리를 구성해 상품 기획, 농가 인터뷰, 연출 방향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제 판매 경험을 축적해 향후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적극 발굴해 마케팅교육, 스마트 스토어 입점,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관로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의회는 의회청사 앞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내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카이스트-삼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과 갈등 양상

카이스트-삼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

경기 평택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 선언후 의회청사 앞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내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카이스트-삼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쟁 구부양을 당당하게 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성명서에는 카이스트와 삼성은 브레인시티 내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과 공동연구센터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조

속히 실행할 것, 카이스트-삼성 공동연구센터의 설립과 설립 이후 성공적인 운영이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라는 K-반도체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길이며 정부도 함께할 것,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K-반도체 핵심 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 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 발표후 임시회를 마무리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평택/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지난 7일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지역 내 주요시설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철원군 제공>

철원군, 수해지역 복구작업 속도낸다

이현중 군수, 여름철 재난취약시설·재해복구 현장점검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전날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지역 내 주요시설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공정 및 안전진행 검토 등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김화읍 생장리과 동송읍 이갈리, 철원읍 대리리 등 재해취약 지역의 복구 진행상황과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지시했다.

생장리 재해복구 현장은 화강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438m 총수령이벽 설치와 마무리중이며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간이배수 펌프장 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한탄강이 흐르는 이갈리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공정 및 안전진행 검토 등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군수는 “일기예보는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철원/지명복기자 jimb123@jeonmae.co.kr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경남 하동군은 정동원 카페 오픈 1주년을 맞아 10·11일 이틀간 진교면 안삼리 옛 남해 고속도로 진교전망대에서 하동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진교전망대는 정동원 카페와 인접해 있어 카페를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맑은 남 지리산 전망봉이 보일 정도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전망대와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갖춰져 쉬어가는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관내 7개 업체가 직접 생산·가공한 녹차·건과물류·매실장아찌·하동고 등 60여 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시종근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하동/ 임홍섭기자 imhs@jeonmae.co.kr

학원·교습소 방역현장 특별 점검 실시

경남 의령교육지원청은 7월 한달간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환기 및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방역수칙 이행실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학원 및 교습소 내 소독 실시 여부, 자기전담 앱 사용 등을 중점사항으로 점검하면서 '감염예방'을 위한 및 조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글초 교육장은 이번 특별점검에 직접 동행해 방역수칙 이행실태 확인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재차 상기시키고 마스크 착용, 소독, 수시 환기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안내했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2030세대·중장년층 주 이용시설 점검

경남 진주시는 거러두기 개편에 따라 개인 방역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고 최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주로 밀집하는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30세대 및 중장년층의 주 이용시설인 라이브주점, 청년 밀집업소 등 335개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신종우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 산재해 방역조치로서 방역 취약 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담당 지역별로 책임 부서장을 지정해 출입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예방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 부작용 방역 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CCTV 설치 권고, 안심플 설치 지원 등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진주/ 박종홍기자 bib@jeonmae.co.kr

레지오널리즘 사전예방 수계시설 검사

전남 고흥군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병원 및 다중이용시설 10개소, 38건 대상으로 레지오널리즘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사전예방하고자 수계시설 검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레지오널리즘은 방각탐수, 건물외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널리즘이 예외로줄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한다.

레지오넬라 폐렴 발생 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50세 이상,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에서 주로 발생한다. 군은 하절기에 가동하는 방각탐 뿐 아니라 연중 사용하는 병원 및 목욕탕 욕조수 등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청소·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등 철저한 환경관리를 당부했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영양고추연구회 고품질 고품생산 교육

경북 영양군은 7일부터 8일 양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양고추연구회가 주관하는 고품질 고품생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양고추연구회원 및 관심농민 등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고추 병해충 및 생리장애', '고추 병방제를 위한 농약사용법', '고추재배 현황 및 문제점' 등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고추교육을 진행했다.

영양고추연구회는 고추 기술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와 관련된 신기술들을 빠르게 적용해 군 고추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오도장 군수는 "영양고추연구회의 주도하에 군의 고추 명품화를 이끌어 관내 고추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 김광철기자 kw-kim@jeonmae.co.kr

아간 관광프로그램 '2021 삼강이행' 개최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이 내달 8일부터 7일까지 오후 5시부터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아간 관광프로그램인 '2021 삼강이행'을 개최한다. '한 여름밤 달빛 나들이'라는 주제로 달맞이차 타기, 삼강구락 해설과 보물찾기, 북치고 미음 밝히기, LED 사인아트 체험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포토존 등 이행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을 마련해 여름밤 나들이 즐거움을 더했으며 이행 참가비는 1인 기준 1만 원, 만 5세 이하는 무료다. 이행 참가를 희망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약정된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예천/ 장세천기자 jangsch@jeonmae.co.kr

의령군 “정부, 이견희 미술관 유치 지방 버렸다”

군, 문체부 ‘이견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에 강력 반발
오대원 군수 “문화분권·균형발전 외면...타 지자체와 공동대응”

경남 의령군이 ‘이견희 미술관’ 서울 건립을 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8일 이번 결정과 관련 “에 당초 서울을 염두에 두고 답을 청했고 생색 내기로 지방에 유치전을 펼친 것이 아니냐”며 “이번 발표에 지방은 안중에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가 기준지를 서울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가 내세운 국가 기준의 취지 준중과 기준의 가치 확산은 지방에 건립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며 “만약 기준지의 고향에 들어선다면 그 기준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전문성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은 서울에서만 가능한 것인지만 반문하며 지방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방의 역할을 키워 중앙과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문체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의령이 아니라도 지방에서 분산돼 설립될 줄 알았다”, “말로만 따르는 지방분권”, “지방은 서울의 문화 식민지” 등 다소 거친 반응이 쏟아졌다.

또한 “고향 덕 보자는 게 아니라 고향을 기억해 달라”는 호소도 있었다.

군은 그동안 ‘이견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군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출생지이면서 고 이견희 회장이 성장한 지역으로 고 이견희 회장의 사회 환원과 온 국민 공유의 큰 뜻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0만 내외의 군민과 향우가 합심해서 유치전을 펼쳐왔다.

군은 삼성의 고향인 정곡면 중교리 일대에 ‘이견희 미술관’을 유치하고 삼성의 경제보급, 창업정신 등을 기리는 ‘삼성특별관’을 자체 건립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을 구상했으며 글로벌 문화축제인 ‘호암문화예술제’를 개최해 삼성가를 기념하는



경남 의령군이 이견희 미술관 서울 건립에 강력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이견희 미술관 의령 유치 범군민 서명운동 당시 모습. <오영근 제공>

다는 아산천 포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인근 진주시와 공동으로 이견희 미술관 지방 설치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대응하기도 했으며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유치 지원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군은 이번 문체부의 결정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대원 군수는 “의령에 건립해야 한다는 지역이기주의로서 미술관 건립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아니었다”며 “하지만 정부 문

화분권과 균형발전의 결론은 언제나 서울로 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령군은 유치를 희망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순천만가든마켓’ 개소 막바지 구슬땀

시장가력 등 현 유통체계 문제점 해소
꽃집 취급 식물지재는 소매판매 인해

전남 순천시가 대한민국 정원산업을 견인할 ‘순천만가든마켓’의 10월 말 개소를 목표로 건립공사에 한창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바람직한 사후관리분석을 통해 정원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전에 대한 지역 내 기대수요가 높아지고 특히 정원수 생산·가공 단계의 유통단절 등 지산에 대해 꾸준한 요구로 지난 2017년 산림청 국립 건의사업을 통해 정원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순천만가든마켓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크게 정원수공판장과 정원자재종합유통전시판매장 2개의 기능을 주축으로 순천을 정원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갈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국 정원수 생산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로 농가수가 800여 농가에 이르러 정원수 생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는 정원수의 현 유통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원수 판매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가격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장기적으로는 순천형 정원수 표준화 모델 발굴, 정원수 품질인증제 도입, 상품종 육성·재배·판매, 전국적인 정원수 유통의 종합정보센터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원자재종합 유통전시판매장에서는 국내외 정원 자재, 도구, 용품, 가구는 물론 모델정원 전시, 설계 시공, 정원

관리 등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순천만가든마켓 건립 후 지역 내 화훼소상공인의 생계위협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원산업 관계자간 상생을 위해 순천만가든마켓 정원자재종합 유통전시판매장에서는 화훼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식물·자재에 대해 소매판매는 양기로 결정했다.

시는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골목 없는 정원산업을 육성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확산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최영화 시 정원산업과장은 “2023순천만 정원박람회 특별법에서도 언급된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순천만가든마켓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고윤환 문경시장, 지역 발전·현안사업 국비 확보 동분서주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지원 요청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동분서주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고 시장은 지난 7일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경 역사권 도시개발사업,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사업, 궁기지구 다목적 농촌유수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국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 건의했다.

시는 현재 2023년 중부내륙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마레 문경을 이끌어갈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문경역 주변에 교통과 도시인구의 변화에 대응할 ‘문경 역사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국비 1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러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가 문경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더불어 농암면 궁기거리의 안정적인 농업유수 공급을 위한 ‘궁기지구 다목적

농촌유수 개발사업’의 대상지구 선정 및 국비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중부내륙철도의 단절구간인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추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을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건의했다.

고윤환 시장은 “마레 문경의 신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함안스포르타운 리틀야구장 새단장...시설 전면 보완

7억 투입 노후시설 개·보수

경남 함안군은 8일 함안스포르타운 리틀야구장을 새롭게 단장해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함안스포르타운 리틀야구장 시설 개·보수는 지난해 야구 꿈나무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했으며 지난 3월 착공 후 3개월 여만에 준공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배수로 정비 및 인조잔디 조성(1면), 펜스 교체, 분부석 설

치 등으로 시설을 전면 보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함안스포르타운 리틀야구장을 새롭게 단장해 개장한다고 밝혔다. 물론 유소년 야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조성된 함안리 리틀야구장은 잔디구장 1면과 마사구장 1면으로 사용돼 왔으며 시설 노후화 및 배수시설 불량 등으로 시설보강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함안/ 김경도기자 jd2009@jeonmae.co.kr

영광군, 2021년 전남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종합 1위

전남 영광군은 지난 7일 영광군청 소회 의실에서 2021년 전남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재장애인에 대해 축하를 하고 격려했다.

한준성 군수는 “그동안 연한한 기량을 발휘해 발취해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영광군의 위상을 높여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오는 9월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더욱 좋은 성적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대회는 장애인들의 기능향상 및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직업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영광/ 박가진기자 gajin@jeonmae.co.kr

푸드뱅크 사업 후원자 연중 모집

경남 남해군자원봉사센터는 취약계층에게 식품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해 사랑나눔을 실천할 후원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푸드뱅크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이다.

기부 가능한 물품은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이며 기부가능 물품 내 물품별 모집가능량보다 유통기한이 긴 물품만 기부 가능하다.

기부에 동참한 기업 및 개인에게는 기부 식품 영수증이 발급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식품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과 업체의 이미지 상승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들러 푸드뱅크 기부자로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결식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실적에 따라 우리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포상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군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푸드뱅크는 읍면별로 추천받은 개인 이용자들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식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 박종홍기자 bib@jeonmae.co.kr

영암군, 농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 선정

70억 확보 2025년까지 진행

전남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돼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등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4개년 사업으로 농촌자원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 지역 인재육성 및 조직화, 농산물 홍보마케팅을 위한 소규모 트래킹 사업, 로컬푸드 유통기반, 농식품 가공센터 확충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군은 ‘기(氣)찬 영암, 활기(氣)찬 133프로젝트’라는 목표를 정하고 1품(品) 지역

농특산물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명품화’, 3산(産) ‘생산·가공·유통·판매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농산물 고도화’, 3층(層) ‘소득·일자리·관광객 증대로 영암경제 활력화’를 목표로 공모에 응했다. 이를 실천코자 농촌 사회경제 공동체를 육성해 차별화된 농업 혁신기반 확보로 농특산물 제품 다각화, 제품개발 및 대량소비처 연계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추진단이 재발생할 수 있도록 소독정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 농촌활력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남원시, 하수처리장 스마트화 동력 얻었다

국비 20억 확보

전남 남원시가 최근 ‘2022년 스마트 하수도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0억7400만 원 중 국비 20억37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한국판 그린뉴딜 분야 중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하수도 사업’ 2022년 사업 대상지 7곳에 남원 하수처리장 선정, 내년부터 남원하수처리장의 스마트화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남원하수처리장의 스마트 하수도 사업 선정을 위해 작년부터 환경부, 기지방과 전라북도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타당

성과 필요성을 과학한 결과 마침내 선정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

스마트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관리를 도입해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해 시민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남원시는 스마트화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하수를 항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전남 장흥군은 최근 전남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개장식을 가졌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전남 첫 ‘사회적경제 공동 판매장’ 개장

제품 판로 확보·접근성 향상
41개사 입점·320여 품목 판매

전남 장흥군은 최근 토요일마다 다 가운데서 전남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개장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도와 군의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제품 구매를 촉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에서는 처음으로 개장식을 가졌다.

특히 개장식에서 전남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등 4500만 원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가 이뤄졌다.

정중순 군수는 “사회적경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인 만큼 모두가 사회적 가치 확산에 노력하자”며 “도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 필수 코스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한 공동판매장은 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관내 업체 41개사가 입점해 320여 개 품목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충남 중심 흥성’ 가시적 성과 박차

상반기 실적·하반기 계획 보고회 “환경해린 중심도시 도약 총력전”

충남 흥성군은 ‘충남의 중심 흥성’ 비전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전반기 운영 회의실에서 김경식 부군수를 비롯한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운영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8건의 역점사업을 비롯해 총 1115건 사업의 상반기 운영업무 추진 상황 점검과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현안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서해선 고속전철 서울 직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벽산 제2공장 등 5개 기업 유치, 공중주택 1만 2000가구 추가 공급, 남당항 백사장 복원 및 노을 전망대 조성,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죽도 선정, 흥성마을 생산 기반 확대 및 대형마트 유통으로 고유 브랜드 구축, 흥성사량식품관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흥성역~내포도시철도산단간지 연결도로 개통 인박 등을 보고했다.

또한 하반기 역점 사업으로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및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 시 전환 및 신청사 건립 추진,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 축제관광 및 해양공원 조성, 죽도항·공리항 어촌뉴딜300 추진, 복합레저

스카이라인 조성, 흥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농촌협약 사업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흥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흥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방역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부군수는 “그동안 다진 기반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환경해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악성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상 수상, 7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우수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군부 1위, 시군평가 우수기관, 지방하천 정비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등 17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홍성/ 최성희기자 sghoi@jeonmae.co.kr



강원 정선군이 일제면 월탄마을 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지난달 사업을 완료했다. <정선도 제공>

정선군, 월탄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완료

상습침수 예방 기대

강원 정선군이 매년 우기 집중우 과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제면 용산리 월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작년 3월부터 월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월탄지

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중앙과 도의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확정했다. 이후 실시계획을 비롯해 관련 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3월 착공했다.

교량 134m 하천제방 1.23km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여러 어려움과 제약요인들을 해소하며 환경보존과 개발을 잘 융합해 지난 4년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마무리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특히 본사업은 내년 2월 1일까지 공사예정이었으나 대규모 장비 투입, 철저한 공정-품질 관리로 우기전 사업장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지난달말 준공해 월탄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 마무리되며 앞으로 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양력 건설과장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동두천시,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동 걸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612건 집중 조사

경기 동두천시는 ‘2021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을 시작, 총612건을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내달 27일까지 단선, 단수, 안개포, 관리비 장기 체납 등 생활고를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집중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기록을 활용할 예정이며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과 중복되는 만큼 다양한 위함요인이 확인된 저소득층 가정에 공공·민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가정 내 위기상황까지 더해져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있지만 복지정보 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안양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수출활력 제고 박차

2021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경기 안양시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위촉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 비즈니스 상담부스를 마련해 관내기업 10개사와 산남방지역 말레시아와 싱가포르 바이어간 실시간 화상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말레시아 중소기업협회간에 교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65건 6300만달러(한화 70억 원상당)의 수출상담액과 50만 달러의 팔로워 만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is@jeonmae.co.kr

또 행사종료 후에도 후속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아 지원하고 내년에는 화상상담과 해외시장 개척단을 병행 지원하는온오프라인(O2O) 전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이미인터내셔널 김철진 대표는 “화상 내수매출에만 의존하다가 안양시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수출(글로벌)기업으로 성장·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상담회장을 방한해 참가기업과 바이어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시대 장기화로 기업의 수출 및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수출상담회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와 글로벌시장 환경적응에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is@jeonmae.co.kr

황성군 “탄소중립 위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할 것”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 온힘

강원 황성군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자원순환도시 황성’을 조성하겠다고 8일 정제브리핑에서 밝혔다.

군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황성이 이루는 꿈, 탄소중립 중심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실천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군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자원순환도시 황성 조성을 위해 폐기물 자원순환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농 폐비닐을 포환, 버려지는

페플라스틱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폐비닐을 열분해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 검토, 폐가전을 성상별로 단순 분해, 수도권외의 재처리 시설로 보내는 선처리 작업 시설인 ‘폐가전 순환센터’ 건립, 지역주민 주도의 페플라스틱 수거·재활용 체계 별도 구축 등을 시행하는 한편 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자원봉사단 ‘환경 자키퍼’를 운영하고 환경의 중요성과 자원 순환의 이해를 위해 청정환경사업소 내 가족 단위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황성/ 안종욱기자 iyahn@jeonmae.co.kr

가평 청평고을 ‘7080낭만’ 살린다

군, 20일 기공식 본격 시동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박차

경기 가평군 옛 청평역 일대에 옛 낭만이 깃든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8일 군에 따르면 7080년대 청평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20일 청평고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는다.

연말까지 청평면 청평리 구역사 일원에는 사업비 50억여 원이 투입돼 메인광장 및 테마트레인이 들어선다.

길이 624m의 특화가로 조성과 추억의 강변 가요제길 404m가 만들어 지는 등 낙후돼 있는 이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 청평역세권 중로 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내년 3월까지 추진기로 했다.

군은 9억여 원을 들여 청평면 청평리 383-22번지 일원에 폭 15m, 길이 374m의 도로가 개설돼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지난 2019년 청평고을 조성 마스터플랜에 따른 관광수요 예측결과 오는 2025년 기준 약 121만여 명의 관광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는 등 청평지역을 체류형 도심 관광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자생력 확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은 30여 년 전 청년문화의 중심지였던 청평을 도농 상생과 세대통합의 장으로 만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군은 이에 앞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 청평면에서 조종전을 건너 호명산으로 가는 등산로인보행전용교량인 ‘호명산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를 완공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국내 첫 수제맥주마을인 청평4리 쉬임마을이 있는 옛 경춘선 청평역 일대 2만6000여㎡에 텃밭, 관리동, 자원동, 산마루 가져원, 연식과과과 등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체험 및 시음, 아카데미, 판매장, 홍보관, 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근에 백주 원로인 휴 농장도 있다.

한편 군은 이 마을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적 모델구축을 위해 군이 추진하는 이팝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및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의 하나로 청평고을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의정부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경기 의정부시는 장기미집행 및 신규(변경)결정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28개소로 장기미집행 시설 321개소, 신규(변경)시설 7개소이며 오는 2023년까지 사업 예

정인 1단계, 2025년까지 사업 예정인 2-1단계, 2026년 이후 사업 예정인 2-2단계로 구분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

가 가능한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우성 도시과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순차적이며 계획적으로 시민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진규기자 kij@jeonmae.co.kr

강원교육청, 4차산업 인재 육성 나선다

융합형특별교실·지능형 과학실 구축 2억 투입 76개교 선정 총 102개 융합형 특별교실 지원

강원교육청은 8일 2021년 융합형특별교실 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 31억5500만 원을 투입해 102개 특별교실의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교실 환경을 교과별 맞춤형 및 융합수업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 공모 부분에 86개교가 선정해 76개교가 선정했으며 과학실 36실, 기술·가정실 16실, 미술실 16실, 음악실 22실 등 총 102개의 융합형 특별교실을 지원한다.

또한 2021학년도 개교 학교인 퇴계중(9실)과 삼마루초(5실)를 우선 지원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소규모

학교 및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학교 중 심층실 안전을 위한 말레시 약장 및 안전장구 구입지원(115교)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융합형특별교실 신규 사업에 지능형 과학실이 신설돼 기존에는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오프라인 과학실 구축에 주력했다면 공간의 제약없이 탐구기반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과학탐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과학정보담당장성규 장학관은 “융통성 있는 특별교실 및 인공지능과 ICBM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과학실 환경을 구축해 첨단 과학을 활용한 실험 및 융합탐구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 오피스텔 조감도. <건도건설 제공>

주거형 오피스텔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 눈길

반도건설은 수도권 핵심지역인 광택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상업지구(비즈니스플렉스타운)에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이뤄진 복합단지를 9월 선보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경기도 광택시 고덕국제계획지구 업무 9-1-1, 9-2-1블록에 총 1116실로 구성된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 주거형 오피스텔과 단지내 브랜드 상가 ‘파파에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 오피스텔은 블록별로 9-1-1은 지하4층, 지상3층~ 최고 45층, 전용면적 59~84㎡ 총 500실, 9-2-1은 지하4층, 지상 3층~ 최고41층, 전용면적 59~84㎡, 총 556실로 구성된다.

중소형 위주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돼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신규 공급이 부족한 고덕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14~15일, 당첨자 발표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며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청약특성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가인 삼성반도체 팹팩터스가 조성되면서 ‘삼성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도건설 ‘유보라 더 크레스트’는 고덕국제신도시 중심부인 비즈니스플렉스타운에 들어선다.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과 SRT·

KTX(예정)·수도권 1호선이 잠자하는 지제역과도 가깝다.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인근에 위치해 고덕신도시 주요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도보 약 10분 거리에 삼성반도체 팹팩터스가 입주한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 고덕초등학교(가칭)가 2023년 9월 개교 예정이며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도 마련됐다.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는 최고 45층 스카이라인을 가진 랜드마크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탁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세대에는 전용면적 59㎡의 경우 현관수납을 강화했으며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는 삼성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고덕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실거주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 & 파파에르’ 안심 견본주택은 광택시 비전동 1102-2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준공은 오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 팹팩

사건·사고

북한강서 배낚시 2명 물에 빠져 숨진채 발견

60대 남성 2명이 경기 가평군 북한강에서 낚시하다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가평군 청령면 북한강에서 한 어민이 물에 빠진 낚시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낚시용 보트 한 척이 띄어있고 시신은 배로부터 약 5m 떨어진 물속에 있었다.

시신은 60대 남성 A씨로 지난 5일부터 일행 한명과 낚시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수식을 해결하며 낚시를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일행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약 3시간 만에 배 아래 물속에서 숨진 60대 B씨를 발견했다. 사고 현장의 수심은 약 2m이며 인근에 소규모 선착장 형태 구조물이 있는 하지만 평소 인적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들에게서 타살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서울대병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정황

서울대병원에서 해킹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8일 경찰청은 최근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서울대병원 해킹 형태의 사이버공격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 등의 개인정보가 민감할 수 있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습대응센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유감스럽게도 6월 5~11일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이 확인됐다"며 "병원에서 보유 중이던 일부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병원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 연락을 드렸다"며 "연관된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형찬기자 linhc@jeonmae.co.kr

"외출후 창문구조 변해"...빈집털이범 덩달

40대 빈집털이범이 창문 원상복구를 잘못하면서 덩달이 잡혔다.

8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A씨(48)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40분께 창원 성산구 중앙동 단독주택 2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귀금속과 명품 가방·시계 등 117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주택 화장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으로 창문을 뜯고 집 내부로 들어가 범행했다.

그후 A씨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재실치를 시도했으나 집 내부에서 창문을 열면 방충망이 있는 기존 구조와 반대로 설치됐다. 집에 돌아온 집주인은 귀금속 등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기 전 화장실 창문 구조가 이상하게 바뀐 점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정밀 분석해 정원 한 속박 업소에 숨어든 A씨를 검거했다.

정원/ 김현준기자 kimh@jeonmae.co.kr

논산훈련소도 무더기 감염 4000여명 진단검사 받는다

8명 추가 확진...누적 61명
1개 중대 200여명중 30%
경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누적 확진자가 60여 명으로 늘었다.

이에 시는 지역내 확산을 막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훈련병 4000여명에 대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8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8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전날 하루 동안 나온 53명을 포함해 확진자는 총 61명이 됐다. 이 가운데 60명은 모두 지난날 14일 입소한

훈련병들로 같은 중대 소속이다. 1개 중대 전체 인원은 200여 명으로 중대원의 약 30%가 감염된 것이다. 남은 1명은 훈련소 내 다른 연대 소속으로 가족 확진 통보 이후 1인 격리 중 양상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전날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이 겹치는 다른 중대 소속 훈련병 및 기간장병·간부 등 4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자가 추가된 것이다.

이들 400명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됐지만 확진자들이 예방적 관리를 위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해제 이후 최소 2주간 다른 훈련병들과 섞여 생활하고 훈련을 받던 인원들이라는 점에서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하

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2주 정도이지만 사람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잠복기가 길어져 뒤늦게 증세가 나타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입소 후 부대 내 다른 무증상 감염자와 접촉 후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군은 동선이 겹치는 기간장병과 간부, 훈련병들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예방적 격리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는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라 지역내 확산을 막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훈련병 40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강원 정선경찰서는 8일 강원랜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선경찰서 제공>

정선경찰서 "불법촬영 카메라 꼼짝마"

강원 정선경찰서는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일 강원랜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선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앞서 다중이용시설(하이원리조트)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점검반을 구성해 총 1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일회용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이들러 정선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버스터미널, 가차역, 전통시장 등 이용객

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점검 점검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불법촬영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광일 서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강원랜드와 공중화장실 합동점검

박광일 서장 "이용 불안감 없앨것"

경북도,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재해예방 총력

5개 지역 토석채취 사업장 중점
재해영향평가 미이행 2건 지적

경북도는 지난날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5개 시군(김천, 구미, 상주, 영천, 봉화)을 표본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주요 지적사항을 최근 전 시군에 사전 통보해 집중호우 시 산지개발 사업장(토석채취, 태양

광발전)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토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임시집사지 미설치 및 설치위주 부정성, 가배수로 미설치 및 관리 미흡(토사저장, 규격미달), 영구집사지 미설치 및 위치 임의변경 등 총 5건의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이 있다.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재·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 시군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북부지방산림청장, 집중호우 대비 산림토목사업지 점검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8일 강원 홍천에 위치한 간선임도 및 산림유역관리사업지를 찾아 추진현황과 집중호우 대비 절성토사면에 비닐 피복, 임시 횡단 배수로 설치 등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완료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원주/ 안종률기자 tyahn@jeonmae.co.kr

음란사이트로 도박·성매매 광고 8억 '꿀꺽'

경기남부청 추적질 2명 적발
불법음란물 23만건 유료 혐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해준 대가로 수익원을 쟁긴 일당이 붙잡혔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20) 등 2명을 음란물 유통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영상과 사진 등 불법

음란물 23만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6개 사이트에 웹툰, TV 콘텐츠 등 저작물도 88만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압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쟁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게 하거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는데 접속률이 하루 평균 5~6만건, 월 평균 150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추적을 피

해온 A씨 등을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 수익금 30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이들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

해의 도피 중단을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론 무효화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사법공조·인터폴 작속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신속하게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세종시, 수질오염총량관리로 미호천·금강 수질 개선한다

환경부, 4단계 기본계획 승인

세종시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적용하는 제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기본계획에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해당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할당부하량 등이 설정됐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은 금강 상류로부터 금강 B 유역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2

mg/L, 총인(T-P) 0.062mg/L, 미호B 유역은 BOD 4.0mg/L, T-P 0.089mg/L으로 정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하량 관리와 조차원 남다비점오염저감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통해 오염부하량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윤병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영준기자 yjyu@jeonmae.co.kr

"학생들이 행복한 친환경 책걸상"

(주)동현플라코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 내 아이가 쓴다는 생각으로 친환경 책상을 만듭니다. 친환경 안전 강화유리상판 및 햇빛이 반사가 없는 친환경 안전 무반사 유리상판, 세라믹 바탕 상판을 생산합니다. 동현플라코만의 특허와 기술력으로 제품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재 가공 등 제품 자동화 생산과 불량률 0에 도전할 것 입니다. 더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동현플라코 김준영 대표이사



동정

예산확보 기재부 방문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9일 오전 11시 40분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한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김상연 강원 동해시장은 9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1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

의용소방대 산별전환비 전달식



김영호 강원 삼척시장은 9일 오후 3시 시 산별대응센터에서 진행되는 의용소방대 산별전환 장비 전달식에 참석.

남부동 통통 민원 소통의 날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9일 오후 3시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통통 민원 소통의 날' 간담회에 참석.

창산·정척 재안본선 발표회



문정연 충남 금산군수는 9일 오후 2시 금산리조트에서 열리는 2021년 군 청소년정책 제안 대회 본선 발표대회에 참석.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 간담회



노백래 충남 서천군수는 9일 오전 10시에 종천농공단지에서 열리는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 간담회에 참석.

오기면 이장회의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9일 오전 11시 오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오기면 이장회의에 참석.

응왕제 행사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9일 오전 11시 낙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응왕제' 행사에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2021 도농교류의 날' 기념 행사에서 농촌발전유공-도농교류 분야로 양평군(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와 양평군 가루메 농어촌체험마을이 각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양평군,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서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검정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2021 도농교류의 날' 기념 행사에서 농촌발전유공-도농교류 분야로 양평군(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와 양평군 가루메 농어촌체험마을이 각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대상자 31명 중 양평군에서 2명이 정부유공 포상자로 선정됐으며 군의 농촌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의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는 지난 2005년 6월 민주도로 체림마을 협의회를 구성해 12월 정립을 시작으로 양평농촌체험마을과 방문객을 연계해 전국 최초로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를 구축 및 체계적 유지와 체림프로그램 운영 등 체림마을을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가루메 농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009년 9월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딸기 따기, 배집 만들기, 고무줄 총 만들기 등 체험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군이 농촌체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홍선식기자 hongsm@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진주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서부지사와 MOU 체결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활성화 힘 모은다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는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대학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서부지사와 간담회 및 MOU 체결식을 가졌다.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이하 진주폴리텍대학)는 8일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전남 대학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서부지사와 간담회 및 MOU 체결식을 가졌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설치된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산업인프라 현황 및 산업환경 변화 등의 여건으로 현장에서는 고속터미널 양성에 위한 인프라 확장 구축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지난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서부지사가 신설돼 앞으로 진주에서 서부경남지역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안선 등 인력자원개발(HRD)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박문수 진주폴리텍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진주폴리텍대학에서 진행해 오던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지

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경남서부지사와 연계한 교육·취업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과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서부지사장은 "서부경남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우수한 결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포토뉴스



유근시 경기도의원, 광명 광문초 체육관 신축현장 점검 유근시 경기도의원(대민주·광명4)은 최근 학교 급식당과 체육관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명 광문초등학교를 방문해 공사 현황 및 진행 상황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노후보일러 교체사업 진행 강원 양양군자원봉사센터는 8일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을 진행했다. 양양/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진주시복지재단, 기관·단체 이웃돕기 성품품 기부 경남 진주시복지재단은 전날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지역사회 기금단체들의 성품품 기부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진주/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하남라이온스클럽, 시에 1억 상당 의료 4천 벌 기부 경기 하남시는 전날 하남라이온스클럽에서 1억 원 상당 의료 4천 벌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남/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동상 제막 충남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최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홍성/최성기기자 sgchoi@jeonmae.co.kr



철원군, 교육용 멀티툰 보드게임 시연회 종료 강원 철원군은 전날 양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근초고고사 과학기반 창의융합 STEAM 교육용 멀티툰(Melt Down) 보드게임 교육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8일 밝혔다. 철원/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청양군 새마을부녀회, 결연 노인들에게 밀반찬 전달 충남 청양군 새마을부녀회는 전날 비봉면 복지회관에서 읍면 회장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연 노인 밀반찬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양/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금산군 남일면-KT, 우리고향TV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충남 금산군 남일면은 최근 남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초고사 '우리고향TV' 지역소식 알림 서비스를 제공에 나선다. 금산/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김재균 경기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

세교동 마을 정원길 등 2개 사업

김재균 경기도의원(대민주·광명2·사진)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평택시에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 규모는 9개 사업, 52억 2000만원이며 이 중 김 의원의 노력으로 세교동 마을정원길 조성사업 및 국도1호선~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1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교야' 조성사업은 녹지 면적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세교동 내 안중초지를 정비해 산책로 조성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세교동 인구의 약 52%가 분포한 구간에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교야 마을 정원길 사업 조성을 통해 통근통학길과 함께 주민들의 여가



쉼터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도1호선~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광명 교동광 분산, 특히 이충동·송탄동 교통량 분산으로 국도 1호선 송탄출장소 앞 교통 혼잡 해소와 동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며 총사업비 113억여 원 중 시에서 편성하지 못한 1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탄력을 받아 하루빨리 준공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부천성모병원, 취약계층 대상 '더 건강한 하루' 실시

총 230가구 보양식 등 전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최근 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보양식을 포함한 건강키트를 전달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더 건강한 하루'를 진행했다.

올해 준비한 건강키트에는 보양식과 함께 알약만 주겨 환절기에 따른 해충퇴치를 위한 살충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등으로 구성, 이를 정비하기에 담아 초복을 전후해 총 230가구에 전달한다. 한편 부천성모병원은 '부천성모 치과'라는 이름으로 부천 관내 그룹홈 시설에



부천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보양식과 함께 여름에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된 건강키트를 전달하는 '더 건강한 하루'를 진행했다. <부천성모병원 제공>

겨주하는 청소년 대상 북맞이 차이나눔을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군포1동 주민자치회,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경기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가 초복을 앞두고 최근 군포1동 관내 경로당 12곳의 어르신들께 삼계탕 등을 직접 나눠드리고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군포1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로 휴관해 온 경로당이 최근 다시 개방함에 따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떡, 과일, 삼계탕을 준비해 직접 대접함으로써 코로나19와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께 작은 위안이 됐다.

군포1동 최명진 주민자치회장은 "어르신들이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과 우울감



군포1동 주민자치회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나눠주고 있다. <군포1동 주민자치회 제공>

을 느끼지 않도록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관계망 형성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군포/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의령군 산림조합, 산림부산물 수익금 1000만원 기부

경남 의령군 산림조합이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1000만 원을 군에 기부(사진)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익금은 폐기물로 처리되는 산림부산물을 재활용해 발생한 것으로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탁은 올해 1월 선도단지 수익금 기탁에 이은 두 번째 기탁으로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환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원영 산림조합장은 "바려지는 산림부산물들이 돈이 돼 어르신들을 위해 떡, 과일, 삼계탕 등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의령군 산림조합이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1000만 원을 군에 기부했다. <의령군 산림조합 제공>

오래된 군수는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령/최만규기자 chpaag@jeonmae.co.kr

하동 귀촌 독지가, 손소독제 등 기부 '훈훈'

4000만원 상당 각 2000개 기탁

군, 취약계층·복지시설에 전달

경남 하동군은 악양면으로 귀촌한 독지가 성원철(44)씨가 전달한 손수세제와 핸드크림을 4000만원 상당 2000개씩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지난 3월 악양면으로 귀촌해 1년 살기 중이며 사업을 하면서 판매하던 500ml들이 손소독제와 50ml들이 핸드크림 2000개씩을 기부했다.

군은 기탁받은 물품을 독지가의 뜻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성씨는 "연고지 없는 하동 악양면에 귀촌해 힘든 점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



경남 하동군은 악양면으로 귀촌한 독지가 성원철(왼쪽)씨가 군수 집무실을 찾아 4000만원 상당 손소독제와 핸드크림 각 2000개를 기탁했다. <하동군 제공>

에 동참하며 숭순수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상기 군수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수품이 된 손소독제와 핸드크림을 후원해준 기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1년 살기'를 넘어 아름다운 인연으로 계속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동/임홍성기자 imhs@jeonmae.co.kr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올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에서 27개 소속기관 중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 해양경찰서로 선정됐다. <보령해양청 제공>

보령해양 '개인정보 관리 최우수 관서' 선정

해양청 27개 소속기관 중 민점 1위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올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에서 27개 소속기관 중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 해양경찰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소속 27개 기관에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관리 중인 개인정보 파일 등에 대해 관리체계 구축, 보호 대책 수립, 침해대처 수립 등 3개 분야로 10개 지표, 16개의 항목으로 세부화해 평가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서천군, 제16회 2021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

환경정책부문...탄소중립 실현 적극 선도

충남 서천군이 전남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공동 주최하는 제16회 2021 대한민국환경대상에서 '환경정책부문' 대상을 수상(사진)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정화 완료 및 활용방안 마련, 관교전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사업 추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사업 추진, 전국 최초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기후변화대응 교육 추진,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갈금꽃밭 설치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구)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구역 내 13만여 소나무 군락 보전을 위해 토양정화 시설물인 맥문동, 송실국 등을 식재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도입했고 환경정책과 함께



서천군은 제16회 2021 대한민국환경대상에서 '환경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천군 제공>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군인은 더 가볍게

나라사랑 LTE요금제
월 최저 24,200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태블릿과 데이터를 나눠쓰는
데이터 셰어링

FLEX LTE 요금제
월 28,800원

통신비, 리브모바일로 세상 가벼워지다

리브모바일을 검색하세요 www.liivm.com

EVENT

최대 24만원 더 가볍게!
갤럭시를 가져봐

기간: 2021.07.01(목) ~ 2021.09.30(목)
대상: Liiv M Shop이나 삼성 모바일스토어(KB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내) 갤럭시 폰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 주문번호 입력한 고객
혜택: 미션 혜택 최대 16만 포인트리와 유지 혜택 최대 8만 포인트리, 총 24만 포인트리 제공



이벤트 바로가기



*FLEX LTE 요금제 이벤트 월 기본료 28,800원은 이벤트 기간인 2021.7.1 ~ 7.31. 기간 중 개통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개통일 포함 24개월간 제공됩니다.(이벤트 기간 종료 또는 선착순 마감 시, 월 기본료 39,800원, 월 최저 34,300원)
*나라사랑 LTE요금제 월 최저 24,200원은 프로모션 기간인 2021.4.1 ~ 9.30. 기간 중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며, 나라사랑카드 발급대상자가 가입 가능한 나라사랑 LTE 요금제(일반)의 경우 1인 1회선만 개통가능하며 최장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프로모션 기간 종료 시 월 기본료 29,900원, 월 최저 27,700원)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563호(2021.06.23), 광고물유효기간 2021.7.31.까지